



동아리 그들이 걸어왔고 걸어 가야할 '길'에 대하여

올해 초 학내 및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여가 시간의 30% 정도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제까지 동아리의 위상은 두가지 축으로 나뉘어 생각되고 있다.

첫 번째는 반합법적인 민중운동의 수호집단이라고(진보파)나 '민중 운동동아리' 혹은 '민중 운동동아리'라고 지칭된 집단들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마추어적인 동호회적인 집단인 동아리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나름대로 그들은 대중의 자주적인 창조활동이 제한된 사회 안에서 그들 스스로의 활동을

전위적인 집단인가? 분명 동아리인들은 열심히 자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실로 느끼는 동아리의 활동상은 지저분한 것... 그들의 동아리는 이런 면에서 서구의 기로(歧路)에서 자기 부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두가지 축으로 나뉘어 생각되고 있다.

첫 번째는 반합법적인 민중운동의 수호집단이라고(진보파)나 '민중 운동동아리' 혹은 '민중 운동동아리'라고 지칭된 집단들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마추어적인 동호회적인 집단인 동아리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나름대로 그들은 대중의 자주적인 창조활동이 제한된 사회 안에서 그들 스스로의 활동을

실하지 않은 존재 근거 때문에 동아리를 당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단체 동아리들의 조직화가 확실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2. 학생회와 동아리 간의 관계

총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의 상설 특위이다. 회의를 근거로 삼아 보자면 총학생회의 활동목표에 의해 건설된 단체로서 형식상 총학생회의 활동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는 사실상 총학생회에 대해 총감독관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활동을 나름대로

다. 그러나 각각의 단체 동아리는 정확한 지시조직으로 자신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가? 지금까지 동아리연합회가 건설된 단체에서는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동아리연합회의 위상은 동아리들의 의견을 거쳐 자치적으로 보고 받고 있으며, 적어도 단체 안에서는 지시 지치조직의 대립을 받고 있다.

문제는 아직 동아리연합회가 건설되지 않은 단체의 경우이다.

단체 동아리들은 자신들의 자치적 활동의 총괄적인 동아리연합회를 희망하고 있다. 단체 동아리연합회는 단체 학생들의 모든 자치활동이 단체 학생회를 통해 총괄되어야 한다는

대해 책임감 있는 대안을 담보받지 못한 채 '대중 단결'이라는 대변에 합의 하였다.

무책임한 '대중 단결' 선언의 여파는 결국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떠나가는 MT문화에 몰려들었고, 동아리들에게 있어서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자기 결정성에 입각한 역할 규정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동아리는 단결해야 한다. 단결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모호하게 대변을 받았던 동아리들의 문화 정립을 위해서이다.

동아리들은 이제 일원화되고 절대화된 권위의 논리로부터 정소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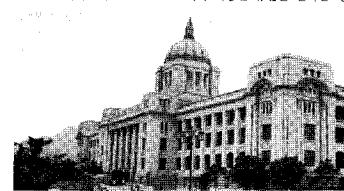
순수한 인간사회의 위해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들의 성격을 재구성하고 하는 논리대 동아리 '이리'의 노력, 학생회의 전조적 목적에 정합

문화원 탐방 (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1908년 9월 창경궁에서 이왕가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였다. 총독박물관을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 국립중앙박물관은 6·25사변때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전후 서울의 남산, 덕수궁 등으로 옮겨다니다가 일제 때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관'에는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전시실이 들어서 있다. 2층에는 박물관의 비문과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가 정돈되어 있다.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고고학적으로 고구려가 다시 조망되고 해석되는 요즘, 세인들의 흥미를 끌기에 부족함이 없다. 3층에는 이왕가 시가 기증한 유물을 전시한 '동



우리문화재 분류사별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의 조선 총독부 건물을 개축 (1986년 8월)하여 지금의 정국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 근대사의 정국과 수난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정국궁 내 3번에 펴의 넓은 대지 위에 위치한 박물관은 전시외에도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자료를 발굴·매입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분류·조사 연구는 물론 문화유산·국유재산 차원의 고관전시

원 기성설, 일본인 이우치 사오씨의 기증물을 전시한 '기'와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금속공예와 고려, 조선의 자기 (磁器) 등이 시대별로 전시되고 있다. 한편 4층에는 서화와 불교화 및 중국 도자기가 전시된 '친인 유물실'과 불교 미술품 전시실 '중앙 아시아 실', '일본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박물관 문화학교'에는 초·중·고등학교, □문의: 738-3800 (이규영 기자)

일원화된 진보 논리로부터의 자유

창조적·전문적 집단으로의 도약 기대 단체 이하 동아리, 조직화·'참 단결의 문화' 이뤄야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내고, '대학생활의 꽃'이라는 자랑스런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가장 자주적인 의미에서의 진보활동을 펼쳐는 집단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게 다지고 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동아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적 진보의 공개화 수위가 높아진 현재에서 있어서는 단순히 '자치적 활동을 벌인다'는 것만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 활동 속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내고 어떤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 내는가'라는 결과로써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동아리는 좀더 전문화되고 좀더 창조적인 집단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우들 자신이 느끼는 동아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과연 현재의 동아리가 창조적이며

회 소속된 동아리는 학교측으로부터 자치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의 일상활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 단체로 보아줄 수 있다. 학교 측은 이들 동아리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체 이하의 동아리는 어떠한가?

그 활동 속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내고 어떤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 내는가'라는 결과로써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동아리는 좀더 전문화되고 좀더 창조적인 집단으로 다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우들 자신이 느끼는 동아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과연 현재의 동아리가 창조적이며

대로의 생각에 의해 벌어 나가는 독자적 자치기구이다. 회를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단체 중에는, 총학생회의 특기하 총학생회의 권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의 조직화 문제와 학생회의 조직화 문제는 다른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3. 동아리의 자기 정체성

이런 동아리의 정체성은 진보적 학술·문화활동이건, 아마추어적인 동호인 활동이건,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내적·외적 조건을 갖추고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제1호는 동아리의 활동 근거로서의 정체성은 동아리 자신의 조직화와 논의규정을 통해서만 정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진보'라는 화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논리를 부각시켰고, 대부분의 학우들은 그 뜻에

입장하였고, 이런 입장이차이를 초월하여 총합될 수 없어 동아리연합회 결성이 어려웠다. 현실에 있어서의 동아리의 활동목표와 학생회의 활동목표는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으며, 동아리의 조직화 문제와 학생회의 조직화 문제는 다른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4. 동아리의 자기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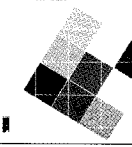
이런 동아리의 정체성은 진보적 학술·문화활동이건, 아마추어적인 동호인 활동이건,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내적·외적 조건을 갖추고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제1호는 동아리의 활동 근거로서의 정체성은 동아리 자신의 조직화와 논의규정을 통해서만 정립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진보'라는 화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논리를 부각시켰고, 대부분의 학우들은 그 뜻에

히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음악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노예로써 '유격대'의 중앙동아리에 이미 노예로써 있다는 이유로 등락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활동 근거를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리들의 자치조직이 시급히 결성되어야 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학생자치조직의 시작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논의의 토대로, 적어도 각 단체마다 동아리들의 협의체 정도는 결성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총합, 단체, 과의 동아리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방식과 활동 내용, 그리고 그에 걸맞은 외부와의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전심으로 바란다.

김지업 (문대리 물리·3)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80년대 말은 국내에 포스트모더니즘 붐이 일어난 시기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예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면서 이

는 세 내막은 상이 되었다.

이 일방적 찬사·반대 극복...건설적 논의

이런 시점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적인

새로운 책

A. 캘러니코스의 '포스트 모더니즘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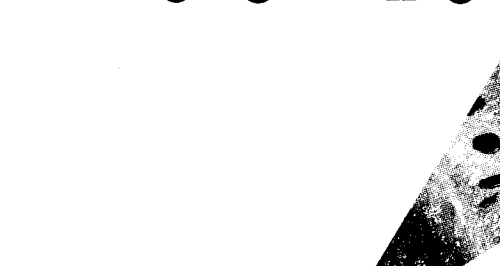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이 출간되면서 그동안 일방적인 찬사 혹은 비판으로 일관해 오던 국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전선이 개입되고 있다. 무도 50으로 구성된 이 책의 제1장 '포스트모더니즘의 양면성'을 읽는 소위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나 단점을 규정해 풍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급진적인 특징들을 포스트모더니즘에 적용하고 있는 담론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장 '모더니즘과 자본주의'에서는 모더니즘의 특수한

마지막으로 제5장 '그러면 무엇이 새로운가'에서 저자는, 아직까지는 두 가지 시도가

해 버릴 수 있는 필연적 과정이라는 관점의 정화를 가지고 있다. 시의 이론뿐 아니라, '다국적' 혹은 '탈국적화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문화적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하에 제기된 자의 혹은 탈자주의적 경향을 띠는 사뮈엘·프레이드 제임스, 스크트 레라, 존 아틀-의 보다 설득력있는 시도와 싸우고 있다.

- 1. 용어지정
2. 용어지정
3. 용어지정
4. 용어지정
5. 용어지정
6. 용어지정
7. 용어지정
8. 용어지정
9. 용어지정
10. 용어지정
11. 용어지정
12. 용어지정
13. 용어지정
14. 용어지정
15. 용어지정
16. 용어지정
17. 용어지정
18. 용어지정
19. 용어지정
20. 용어지정
21. 용어지정
22. 용어지정
23. 용어지정
24. 용어지정
25. 용어지정
26. 용어지정
27. 용어지정
28. 용어지정
29. 용어지정
30. 용어지정
31. 용어지정
32. 용어지정
33. 용어지정
34. 용어지정
35. 용어지정
36. 용어지정
37. 용어지정
38. 용어지정
39. 용어지정
40. 용어지정
41. 용어지정
42. 용어지정
43. 용어지정
44. 용어지정
45. 용어지정
46. 용어지정
47. 용어지정
48. 용어지정
49. 용어지정
50. 용어지정

제7회 엘지아트 대학생 광고대상



新思想 新發想



新思想 新發想

LG Art & Design
Total Marketing Communication Service
주최: 엘지아트